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전담신부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주일미사 오후 3시	고해성사 오후 2시 30분	성당주소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전화 0490-795-346	카카오 채널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28번> 주는 우리의 기쁨	<폴더 20번> 나를 받으옵소서	<폴더 35번> 내 맘에 오시는 주	<폴더 37번> 두려워 말라

제 1독서 | 탈출기 34,4-6,8-9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화답송 |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 2독서 | 코린토 2서 13,11-13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복음 환호송 |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3,16-18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 'Magnifica humanitas (고귀한 인류)'

레오 14세 교황님은 5월 25일 현시대의 가장 주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문제를 다루는 사회 회칙을 반포했습니다.

총 245항으로 구성된 회칙에서 AI와 자율무기, 노동, 인간 존엄, 소수 기업에 집중된 기술 권력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고, 복음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무엇보다도 갈수록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량 실업 가능성, 교육의 미래, 인간 자유의 보호, 청소년의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 암호화폐, 경제적 양극화, 사이버 공격 등을 언급하면서 사회교리 원리의 적용을 제안합니다.**

이 회칙은 기술 발전 속에서도 인류가 자신의 존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숭고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교황님은 회칙 반포 배경과 취지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중 교황님의 연설 중 일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성 바오로는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1코린 3, 10)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건축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한 기초 없이 건축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문제를 논의의 장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도구를 아무렇게나 다룰 수 없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진정한 발전은 언제나 “각 사람과 전인적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각 사람”이란 디지털 변혁의 변방에 누구도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인적”이란 누구도 생산성이나 인지 능력, 혹은 단순한 데이터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기계가 대체하거나 막을 수 없는 자유와 내면성, 그리고 사랑하고 경배할 소명을 그 자신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통합적인 비전을 통해서만 인공지능은 공동선을 위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들과 그 영향을 받는 이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기관과 개인, 권력 중심부와 주변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특권층 소수가 아닌 온 인류 가족을 위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말씀하셨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지평으로 강력히 선포했던 **사랑의 문명**인 것입니다. 이는 순진한 꿈이 아닙니다. 이는 방향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겸손과 솔직함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전문가를 대신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간에 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곧,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며, 양심을 지닌 자유롭고 지성적 주체로서 하느님을 찾고, 서로를 섬기며,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와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용기를 내어 현재의 도전에 맞서며, 더 인간적이고 형제애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협력합시다.”

<연설 영상 유튜브 링크 ->

제목: “AI 위협에 한목소리 낸 교황과 AI 창업자”





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나자렛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그 위에 내려와서 얼마 동안 머물고 그 '그리스도'는 나중에 다시 떠나갔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정말로 인간이 아니었고 하느님이 다만 인간의 겉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여러 주장들에 맞서, **요한 복음 1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밝혀 줍니다.** 그분이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때가 아니라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참으로 사람이시라는 (그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육이 되셨다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복음서 전체를 쓴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한 복음은 그 첫 장에서부터, “저분이 누구 시기예?”라고 묻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14)라고 선포합니다. 소문을 들었던 그분,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고 하고 많은 무리가 따랐던 그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한처음에 이미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온갖 신학 논쟁이 떠오르지만, 이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교 신자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종교를 따르고 있는지 분별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잘 못하면 스스로도 모르고 겉으로 티도 나지 않으면서 사실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복음 1장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모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26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표현이 너무 익숙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먼저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났을 때도, 인간 나자렛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루카 복음 첫머리에 언급된 것과 같은 증인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들은 그분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이 작성된 때는 이미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이 있었고 다른 복음서들도 있었습니다. 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놀라면서 “저분이 누구 시기예?”라고 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 복음이 작성되던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이단(heresy)들을 생각하면 이 말들은 더 중요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8> - 성경 나눔 모임

이번 모임은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는 모임으로 진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성당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채널 「캔버라성당」 채팅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 진행 방식

- 첫째 & 셋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온라인)
- 둘째 & 넷째 주: 주일 미사 후 교육관 (오프라인)

* 신청 마감: 5월 31일(주일)까지

* 6월달 모임 일정

- 첫 번째 모임: 6월 9일(화) 저녁 7시 (Zoom 온라인)
두 번째 모임: 6월 14일(주일) 주일 미사 후 (오프라인)
세 번째 모임: 6월 23일(화) 저녁 7시 (Zoom 온라인)
네 번째 모임: 6월 28일(주일) 주일 미사 후 (오프라인)

* 온라인 모임 때 사용하는 회의실 ID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인간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며,

사랑을 체험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삶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인간의 구원자')

| 공동체 기도 지향

- * 임신부들과 태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5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일깨워 주소서. 모든 음식에 감사하고, 검소하게 먹고, 기쁨으로 나누며, 땅의 열매를 당신께서 모두를 위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도록 하소서.

| 봉헌금 & 교무금 | (5월 23일 ~ 5월 29일)

봉헌금	\$ 255			
교무금	\$ 220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5월 공동체 실천 |

가족들에게 안부인사 더 많이 하기
(전화, 메시지 등)